쓰레기보다 하나님을 더 버린다

(역대하 12:1~16)

1.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2.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오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3. 그에게 병거가 천이백 대요 마병이 육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숙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4.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5. 그 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아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6.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7.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8.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쓰레기보다 하나님을 더 버린다>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쓰레기보다 하나님을 더 버린다’
우리는 일상적인 생활쓰레기보다도 하나님을 더 많이 버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5절에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원인은 1절의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라는 말씀에 있습니다. 즉 율법을 버린 것이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르호보암 왕과 유다 백성을 애굽 왕 시삭이 이끄는 연합군에게 공격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르호보암은 기존에 애굽의 침입을 방비하기 위하여 주로 남쪽과 서쪽

에 성읍들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읍들을 다 빼앗깁니다. 또한 왕궁과 성전에 모아두었던 보물들과 솔로몬이 번영의 상징으로 만들어둔 금 방패 오백 개도 빼앗기는데,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유다를 버리신 모습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다 백성들과 르호보암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일까요?

'버린다'는 말에서 가장 쉽게 연상되는 단어는 쓰레기입니다. 이 쓰레기는 사전적으로 "못쓰게 된 물건이나 내다 버릴 물건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못쓰게 된다'는 말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또한 다른 뜻으로서 "도덕적 사상적으로 타락하거나 부패하여 쓰지 못하게 된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에서도 쓰지 못하게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쓰임이 끝난 것을 쓰레기로 부르고 이러한 쓰레기를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버리십니다. 이 이야기는 곧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쓰이심이 끝난 것으로 보고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도 유다 백성의 쓰임이 끝난 것으로 여기시고 버리십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는 말을 많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이심을 받는다는 말은 감히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지적할 때에 흔히 하나님을 써먹으려 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써먹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것을 참 신앙이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선민을 향하여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이 우리에 의해서 쓰이시기를 원하심을 전제로 하시는 말씀인데 이제까지 우리가 한 말은 다 틀린 말일까요?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을 쓰는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 르호보암과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거나 성전의 각종 제사를 멈추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율법을 버렸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단순히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보다도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법궤 속에 있는 말씀의 돌판을 주신 이유와 똑같습니다. 율법은 단순히 문자를 보고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쓰여 있는 말을 지키기에 앞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인격적인 분이시고 내 삶에 관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이 있음을 증거삼아 인격적인 하나님께 마음을 드림으로서 하나님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갖게 되면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되고 하나님 때문에 기쁘게 되면 율법은 자연스럽게 지켜지게 됩니다. 율법은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 내 마음에 하나님을 갖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율법은 원래부터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가지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뜻

이 우리의 사지백체를 통해 나타나며 그것이 율법에도 맞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돈이나 자녀의 형통이나 승진을 담고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은 지켜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버렸다는 것을 5절에서는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남 왕국 유다의 사람들은 여전히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나왔듯이 남 왕국 유다가 강성하게 되면서 방어용 성읍들을 건축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주어진 재산과 보물과 나라의 경계를 보존하고 지키고 확장하는 것에 하나님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미 하나님의 쓰임의 용도는 폐기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쓰이기를 바라시는지 정확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이것을 모르거나 곡해한다면 본의 아니게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과 같습니다. 핵무기방어체계 사드를 배치하는 것 때문에 중국이 여러 가지로 보복을 하겠다며 난리입니다. 이 보복의 연장선상에서 백건우 씨나 조수미 씨의 중국공연조차도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아서 무효가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의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13억 중국이 참 치사하게 노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을 버린 모습을 설명해보겠습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인 백건우 씨를 모셔다 놓고 피아노를 치는 것이 아닌 춤을 추거나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거나 컴퓨터를 고쳐달라는 부탁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백건우 씨는 청중들에게 아름다운 피아노 연주를 들려주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바람을 무시하고 춤을 춰보라고 요구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조수미 씨를 어렵사리 섭외해서 무대에 올려놓고는 절인 배추를 가져다 놓고 김장을 담그라는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설령 조수미 씨가 김치를 정말 맛있게 하는 능력이 있을지라도, 김치를 위해서 조수미 씨를 부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조수미 씨의 가수로서의 쓰임은 폐기처분되고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로인하여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타나 막혔던 일이 풀리기도 하고 기적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쓰임을 우리의 형통을 원하고 기적을 원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본래의 쓰임새를 용도 폐기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조수미 씨에게 김장을 시키거나, 백건우 씨에게 춤을 요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잘못 쓰려고 합니다.

남 왕국 유다의 사람들은 율법을 버렸으나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그 이름을 부르기는 계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른 용도로서 사용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히 입 밖으로 꺼내기

도 황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버렸다'고 하신 말씀에 비추어 이야기해 볼 때에 하나님의 본래 쓰임새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웃는 일에 쓰이시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웃을 때에 그 웃는 이유가 돈이나 건강이나 형통 때문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웃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 때문에 웃는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어른들이 많은 고민거리를 가지고 있다가도 아이들이 재롱떠는 것을 보면 활짝 웃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웃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아무리 많은 걱정거리가 산적해있더라도 그것을 해결하는 용도로서 쓰이시는 것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걱정거리 중에서도 하나님의 계심을 보고 하나님을 마음에 갖고 하나님으로 만족함으로서 우리가 웃고 기뻐하고 만족하는 일에 쓰이시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대로 하나님을 쓰는 것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르호보암이 보물을 다 빼앗겼다고 했습니다. 앞서 열 지파의 영토가 떨어져 나갔지만 아버지 솔로몬 왕이 모아놓은 보물들은 예루살렘에 다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11장에서 르호보암은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 부지런히 방어용 성벽을 애굽이 있는 남쪽과 서쪽의 블레셋을 향해서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고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르호보암이 지키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마음이 그것들을 붙잡았음을 뜻합니다. 마음으로 붙잡지 않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쓰이심대로 관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알마음이 되어야만 합니다.

알몸은 다 벗는 것입니다. 목욕탕에 가면 라커에 옷을 벗어서 넣어야 하는데 요즘처럼 추운 겨울에는 옷이 두꺼워서 라커가 꽉 찹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을 다 벗어야만 따끈한 목욕탕에 들어가서 몸을 풀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집이 있고 가족이 있고 직장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목욕탕 라커에서처럼 다 벗어야만 합니다. 알마음이 되어서야 하나님의 품에 안겨 그 따끈한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되고 만족함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 벗어버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가 붙잡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만 같기 때문입니다. 알마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쓰이심이 정확하게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웃을 수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도 하나님 때문에 만족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허락하신 것들이 소중해서 내 마음이 붙잡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반대로 우리가 알마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쓰시는 일이 일어나

게 됩니다. 솔로몬 왕에게서 물려받은 보물들이 아깝고 백성들이 집과 산업과 토지 등이 아깝지만 다 버리고 알마음으로 하나님께로 가면, 이것은 곧 내 마음의 웃음을 위해서는 세상 것들이 아무 소용없다는 고백입니다. 내 마음의 웃음과 기쁨과 만족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이지 세상 것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버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버리지 않으시고 다 모으셔서 재활용하십니다. 그렇게 재활용된 것들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TV에서 생활폐기물이나 천의 자투리를 가지고 재활용을 통해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버린 것들이 재창조의 작업을 통해서 하나의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보면서도 자식을 마음의 기쁨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만이 나의 웃음과 만족의 이유가 되신다고 결심할 때에 버리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버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식을 기가 막히는 창조적인 작품으로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이 나를 기쁘게 할 수 없다고 여기며 내 기쁨과 만족의 영역에서 폐기처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마음이 되기 위해 버릴 때에 하나님의 쓰이심의 본래 목적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버린 그 사업을 그 뜻대로 사용하셔서 멋지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붙들고 내 기쁨과 만족을 위해 용도를 부여한다면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가 됩니다. 그럴 때에 내가 붙잡았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방어를 위해 성읍들을 세웠지만 모두 애굽에게 점령을 당했고, 아버지 솔로몬에 의해서 축적되었던 왕궁과 성전의 보물들을 모조리 빼앗기게 됩니다. 르호보암과 백성들이 이것들을 다 마음에서 버리고 하나님을 붙잡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마음에서 버려진 보물과 성읍들을 가지고 멋진 나라를 만드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것들을 끝까지 붙잡기 위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되자 하나님도 이들을 버리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에게 허락하셨던 모든 것들을 거두어가시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날마다 세상으로 웃고 만족하길 바라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쓰이심대로 관계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정한 나의 생의 계획을 이루어 달라고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생활쓰레기보다도 하나님을 더 많이 버리는 셈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동안에는 웃을 일이 없어집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으로 웃게 만들어진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엉뚱한 것으로 기뻐하려고 하니 웃어도 속아서 웃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생활화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려고 하여서 하나님이 버려지려고 할 때마다, 십자가로 돌이켜서 그러한 마음에 대해서 죽은 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 하늘로 올라가서 알마음이 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쓰임새를 굳건히 붙잡

고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으로 기뻐하고 웃고 즐거워하며 만족할 것입니까? 자녀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성공도 아닙니다. 다 버려야만 합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해서 웃다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버린 것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참으로 아름다운 작품들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또 십자가에서 죽으며 하나님으로 웃으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쓰이심을 굳건히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재창조는 계속되어나갈 것인데 이렇게 멋진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마음에서 소중하게 여겨지는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만을 웃음과 만족과 기쁨의 이유로 매일 지켜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